

## 원주~강릉 철도 역사 신축공사 4건 쏟아져

철도공단, 평창·진부 등 긴급공고  
지역의무공동도급 30% 이상 적용

설계금액 기준 각 130억원에서 190억원 규모의 원주~강릉 철도구간의 신규 역사 건립공사 4건이 무더기로 발주돼 건설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.

한국철도시설공단은 11일 평창, 진부, 횡성, 둔내 등 원주~강릉 철도 역사 신축공사 4건을 공고(긴급)하고 시공사 선정에 나선다고 밝혔다.

특히 4건 모두 강원도 소재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의무공동도급 30% 이상이 적용돼 지역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.

여기에 공단이 올해부터 마이너스(-) 예정가격 결정범위를 개정, 설계금액 기준  $\pm 2.5\%$  범위로 변경함에 따라 적정 실행확

보 측면에서도 눈길을 끌고 있다.

앞서 설계금액 대비 95~100% 범위 내에서 예가를 산정했던 것과 비교하면, 적어도 공사비 대비 평균 2%포인트 이상의 낙찰률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.

공사별 주요내용을 보면, 평창역사는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1441-1번지 일원에 건설되며 설계금액은 193억원 규모다.

진부역사는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산 169-4번지 일대에 들어서며 설계금액은 161억원 규모다.

또 횡성군 횡성읍 및 둔내면에서 추진될 횡성역사와 둔내역사 신축공사의 설계금액은 각각 137억원과 133억원 규모다.

공단은 이상 4건의 공사에 대해 모두 적격심사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며, 가격개찰도 오는 27일 한꺼번에 집행할 계획이다. 봉승권기자